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  |  |  |
| --- | --- | --- | --- |
|  | **교과목명** | : | 세상읽기와 논술 |
|  | **학번** | : | 202234-153799 |
|  | **성명** | : | 한승환 |
|  | **연락처** | : | 010-2862-0200 |

EMB000023580f65 ※ A4용지 편집 사용

목차

1. 연습문제 2의 두가지 다른 견해와 각 견해 별 제시문 분류
2.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와 그에 대한 견해
3. 연습문제2에서 제시된 두가지 다른 견해와 각 견해 별 제시문 분류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른 행동과 행위들을 하는데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여기에서 멈출 수 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간행위에 대하여 그 연료는 어디서 생기며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될까? 이 질문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공리적이며 의미가 있는 삶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그 규모가 다분히 개인적이든, 사회의 전반의 보편성에 대한 것이든,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일상과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해당 연습문제에서의 네가지 제시문은 인간이 행위를 할 때 그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있다.

각 네가지 제시문을 바탕으로 볼 때 인간행위의 동기에는 크게 두가지의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필수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자기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사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시문으로는 제시문 **1번**과 **3번**이 있다.

인간이 감정과 감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데에는 생물학적으로 호르몬 분비에 대한 수치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도파민이 높게 되면 뭔가 모르게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행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각기 다른 호르몬 수치에 대응하는 감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호르몬 작용과 생성된 감정에 의해 동기를 얻고 행동하는 인간 내면세계에서는 철저한 계산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있다.

이 ‘손익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양식은 여러가지 행위의 선택지들이 있을 때, 자기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 이익이 가장 큰 선택지를 선택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자신에게 가장 적은 양의 고통을 일으키는 행동을 취한다고도 생각 할 수 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는 그렇게 베풀어진 친절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내면의 판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견해로는 인간이 삶을 살가면서 취하는 존재양식에서 피상적인 손익 이외에도 그보다 더 깊은 뜻과 의미로부터 기인하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시문으로는 **2번**과 **4번**이 있다.

이 견해에서는 인간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경험하는 삶의 정신적이며 보다 더 깊은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제아무리 부자라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부족하게 살아가면서도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며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되는 철학적인 물음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모델을 설정하고 추상화를 거쳐서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인간행동을 단순히 손익계산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삶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무궁한 의미들에 대한 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의미들 중 한가지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는 태도와 그 일이 자신으로 하여금 어떠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옳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우리가 직접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맥락이 일치하게 되며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내재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다.

1.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현대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와 그에 대한 견해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조각한 가장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은총 덕분에 사람이 된 그 처녀 조각상과 사랑을 이어 나가게 되고 아들 파포스를 낳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심리학에서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로 불린다. 이 효과는 특정한 높은 기준의 기대치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이어 나갈 경우 그 기대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피그말리온은 조각상을 만들기전 여성들의 수많은 단점과 결점들을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들을 향한 완벽 무결한 수준의 기준 잣대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자신이 조각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인 여성상과 사랑에 빠지게 이른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인터넷 혁명에 이은 스마트폰의 발명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항상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에 집적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에서는 전국에서, 혹은 심지어 세계각지에서도,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무한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우리는 온갖 자극적인 내용에 순수하게 우리의 관심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소셜 미디어에 있는 자극적인 정보들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우리의 눈과 귀로 끊임없이 들어오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부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고 이는 삶 또는 특정 물건이나 사람에게 염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혐오하는 태도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삶의 한 분야나 어떤 것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비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게 하는 소지가 있다. 이는 역으로 그 분야에 대한 자신이 기대하는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게 한다. 이렇게 까마득하게 높아진 기준치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가치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고 오직 무지개를 쫓는 소년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너도나도 명품백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싶은 욕구, 이성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가져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방해하게 되는 일이나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주의력 있는 고려를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값비싼 외제차를 사려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은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와 더불어 더욱 악화 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이렇게 높아진 기대치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실제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는 없겠으나, 보다 더 건강하고, 의미가 있으며 건설적인 성취를 위하여, 그 무지막지하게 높아진 기대라는 것이 자신의 삶과 그것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인지, 기대치가 비현실적인지는 않은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비현실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기대치에 온갖 신경을 쏟아부으며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다 보면 일상생활의 작지만 소중한 일들과 그에 더해 행복하고 귀중한 삶을 살기위해 책임져야 할 일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현대 사회의 소셜미디어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갈등을 마주할 수 있다. 이것을 잘 극복해가려면 무조건적인 수용과 순간순간의 자극에 심취한 소셜 미디어 이용보다는 더욱 더 성숙하고 비판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이 필요할 것이다.